No. 22 금리·환율 읽는 시간 16분

국채 금리 5% 시대, 미국·일본·한국 금리는 왜 함께 올랐고 무엇을 바꿀까?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26년 첫 거래일 4.19%에서 11월 13일 5.15%로 올랐고 영국·한국·독일·일본도 함께 올랐습니다. 유가, 중앙은행, 나라 빚이라는 세 가지 원인을 각국 재무부·중앙은행 자료로 확인하고, 주식 PER·채권 가격·대출 이자에 나타난 영향과 앞으로 확인할 숫자를 정리합니다.

한 줄 결론

올해 미국 10년물이 오른 0.96%p는 거의 전부 실질금리 상승이었고, 주식은 예상 PER이 22.2배에서 18.3배로 내린 몫을 이익 증가로 메웠음. 앞으로는 유가, 근원물가, 재정적자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함

확인할 숫자

미국 2년물·10년물 금리, 실질금리, 브렌트유 가격, 근원물가 월간 상승률, 국채 이자 비용, 예상 PER



사진: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청사, @mikepick, Flickr.

목차

1. 2026년, 다섯 나라 10년물 국채 금리는 얼마나 올랐을까?
2. 첫 번째 힘: 유가는 금리를 어떻게 끌어올렸을까?
3. 두 번째 힘: 중앙은행은 왜 다시 금리를 올렸을까?
4. 오른 것은 물가 기대일까, 실질금리일까?
5. 세 번째 힘: 나라 빚의 이자는 얼마나 불어났을까?
6. 일본 금리가 오르면 왜 세계 금리가 함께 움직일까?
7. 금리가 이만큼 올랐는데 주가는 왜 버텼을까?
8. 채권·대출·환율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났을까?
9. 앞으로의 금리, 무엇을 보면 될까?
10. 국채 금리 뉴스를 볼 때 던질 여섯 가지 질문

> 이 글은 각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공개한 금리·재정 자료를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특정 종목이나 채권의 매수·매도 권유, 금리·주가 예측이 아닙니다. 채권 가격 계산과 3억 원 대출 이자 계산은 설명용 가상 예시입니다.

11월 13일 금요일,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15%로 마감했습니다. 같은 날 한국 10년물은 4.001%였고, 하루 전 일본 10년물은 2.841%였습니다. 올해 금리 뉴스에는 「2002년 이후 최고」, 「1996년 이후 최고」 같은 말이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는 왜 여러 나라에서 한꺼번에 올랐고, 내 주식과 대출에는 어떤 길로 닿을까요? 각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원자료로 원인 세 가지, 영향 세 가지, 앞으로 볼 숫자를 차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01

2026년, 다섯 나라 10년물 국채 금리는 얼마나 올랐을까?

국채 금리는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율입니다. 그중 10년 만기 금리(10년물)는 대출, 회사채, 주식 가치 계산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금리의 기준점으로 불립니다.

미국 10년물은 올해 첫 거래일 4.19%에서 11월 13일 5.15%로 0.96%p 올랐습니다. %p(퍼센트포인트)는 금리끼리의 차이를 말하는 단위입니다. 영국은 4.52%에서 5.20%, 한국은 3.386%에서 4.001%, 독일은 2.91%에서 3.41%, 일본은 2.111%에서 2.841%가 됐습니다. 다섯 나라 모두 올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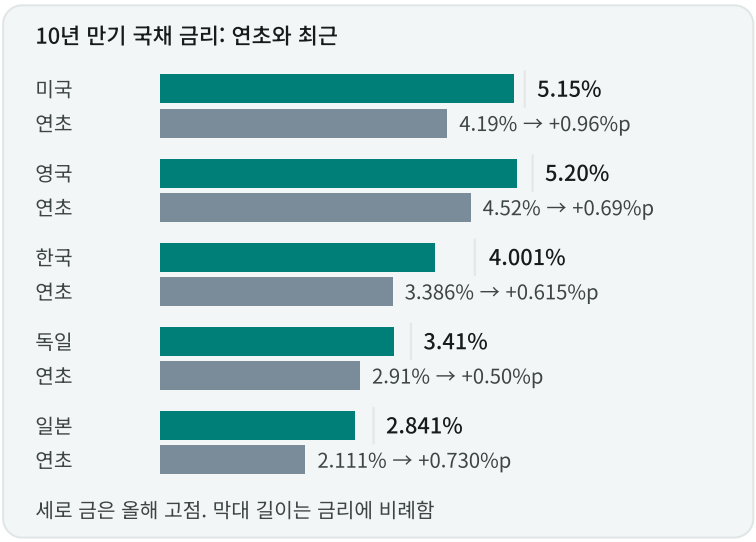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값은 미국·한국·독일 11월 13일, 일본 11월 12일, 영국 11월 11일.
출처는 각국 재무부·중앙은행.

고점은 더 높았습니다. 미국은 10월 5일 5.31%로 2002년 5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영국은 10월 8일 5.43%로 2007년 7월 이후, 독일은 9월 28일 3.66%로 2009년 7월 이후, 일본은 10월 7일 3.111%로 1996년 8월 이후 최고였습니다. 한국은 9월 15일 4.600%로 2022년 10월 이후 최고였습니다.

지금은 다섯 나라 모두 고점에서 0.16~0.60%p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도 연초보다 0.50~0.96%p 높습니다. 수준이 다른 나라들이 같은 방향으로, 비슷한 시기에 움직였습니다. 공통 원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02

첫 번째 힘: 유가는 금리를 어떻게 끌어올렸을까?

공통 원인의 첫째는 유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월 말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시작됐고, 3월 초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막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원유가 빠져나오는 길목입니다.

브렌트유 현물 가격은 충돌 직전인 2월 27일 배럴당 71.32달러였습니다. 4월 7일에는 138.21달러까지 올랐습니다. 1.94배입니다(직접 계산). 4월 휴전 발표 뒤 7월 2일 68.53달러까지 내렸다가, 충돌이 다시 일어나며 10월 2일 135.51달러로 되올랐습니다. 11월 11일에는 92.14달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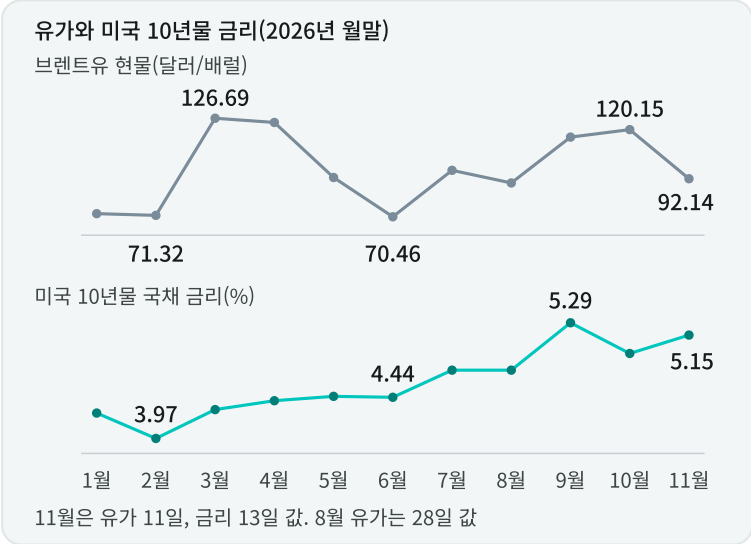


그림 2. 유가가 뛴 3월과 9월에 금리가 올랐지만, 유가가 내려온 6월에도 금리는 2월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았음. 출처는 미국 에너지정보청, 미국 재무부.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미국 소비자물가는 9월까지 1년 동안 3.7% 올랐습니다. 그중 에너지 물가는 20.4% 올랐습니다. 반면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물가는 2.6% 올랐습니다(모두 물가지수로 직접 계산). 물가 상승의 큰 몫이 에너지에서 나왔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채권 투자자는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받을 이자의 가치가 물가만큼 깎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릅니다.

그런데 그림 2에는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6월 말 유가는 70.46달러로 충돌 전 수준까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10년물은 4.44%로, 2월 말 3.97%보다 0.47%p 높았습니다. 유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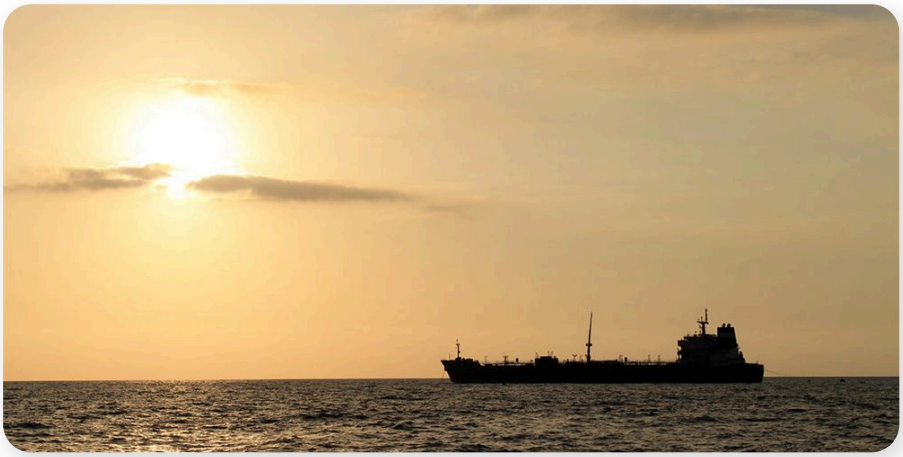


사진: 해 질 녘 바다 위의 유조선, rabiem22, Flickr.

03

두 번째 힘: 중앙은행은 왜 다시 금리를 올렸을까?

그 힘의 하나가 중앙은행입니다. 정책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가장 짧은 금리입니다. 국채 금리는 앞으로의 정책금리 예상을 반영해 움직입니다.

올해 다섯 중앙은행이 모두 정책금리를 올렸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9월 16일 3.50~3.75%에서 3.75~4.00%로 올렸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두 번 올려 예금금리가 2.00%에서 2.50%가 됐습니다. 일본은행은 6월과 9월에 올려 0.75%에서 1.25%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과 8월에 올려 2.50%에서 3.00%가 됐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11월 5일 3.75%에서 4.00%로 올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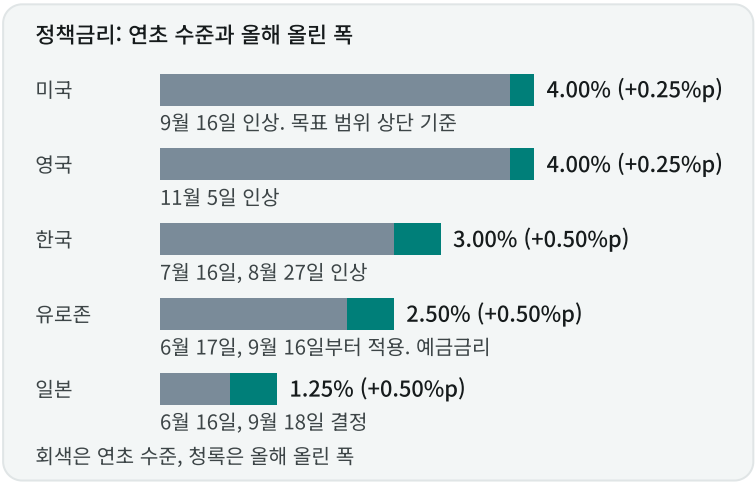


그림 3. 다섯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출처는 각 중앙은행 발표.

이유는 물가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기름값은 운송비와 서비스 가격으로 옮겨 갑니다. 미국 근원물가는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 연속 한 달에 0.3%씩 올랐습니다. 이 속도를 1년으로 환산하면 약 3.7%입니다(직접 계산). 연준의 목표 2%보다 높습니다.

시장은 추가 인상까지 가격에 넣고 있습니다. 미국 2년물 금리는 4.88%로 정책금리 상단 4.00%보다 0.88%p 높습니다. 2년물은 앞으로 2년 동안의 정책금리 예상을 담습니다. 한국도 3년물이 3.759%로 기준금리 3.00%보다 0.759%p 높습니다.

만기별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올해 미국 2년물은 1.41%p, 10년물은 0.96%p, 30년물은 0.61%p 올랐습니다. 짧은 금리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상승의 중심에 정책금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10월 28일 연준 회의는 동결이었지만 12명 중 2명이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CNBC는 11월 13일 기준으로 시장이 12월 인상 확률을 약 87%로 본다고 보도했습니다.

04

오른 것은 물가 기대일까, 실질금리일까?

여기서 금리를 둘로 쪼개면 중요한 사실이 보입니다. 국채 금리는 「실질금리 + 기대 물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질금리는 물가 상승분을 빼고 실제로 남는 이자율입니다. 물가에 따라 원금이 늘어나는 물가연동국채의 금리로 잽니다.

1월 2일 미국 10년물 4.19%는 실질금리 1.94%와 기대 물가 2.25%로 나뉩니다. 11월 13일 5.15%는 실질금리 2.91%와 기대 물가 2.24%입니다. 기대 물가는 두 금리의 차이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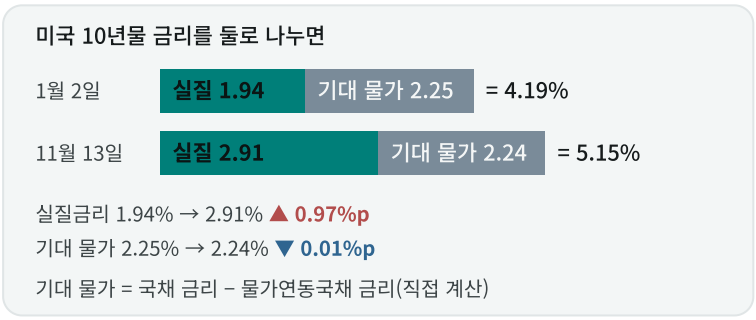


그림 4. 올해 오른 0.96%p는 거의 전부 실질금리에서 나왔음. 출처는 미국 재무부 수익률 곡선.

기대 물가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오른 몫은 사실상 전부 실질금리입니다. 시장은 앞으로 10년 평균 물가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대신 그렇게 되려면 금리가 높게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값은 시장 가격에서 거꾸로 계산한 것이어서 정확한 예측치는 아닙니다.

이 구분은 중요합니다. 실질금리는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치를 계산할 때 쓰는 할인율의 뿌리입니다. 물가 기대 때문에 오른 금리보다 실질금리 때문에 오른 금리가 자산 가격에는 더 무겁습니다.

05

세 번째 힘: 나라 빚의 이자는 얼마나 불어났을까?

세 번째 힘은 빚입니다. 국채도 물건처럼 공급이 늘면 값이 내립니다. 채권은 값이 내리면 금리가 오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재정적자는 1조 9,926억 달러였습니다. 1년 전보다 2,172억 달러 늘었습니다. 국가부채 총액은 1월 2일 38조 4,228억 달러에서 11월 12일 40조 6,085억 달러가 됐습니다. 열 달 남짓 동안 2조 1,857억 달러 늘었습니다(증가분은 직접 계산).

빚이 늘고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불어납니다. 2026 회계연도 국채 이자 비용은 1조 3,604억 달러입니다. 1년 전보다 11.5% 늘었고 2021 회계연도의 2.42배입니다. 같은 해 세입 5조 4,033억 달러의 25.2% 입니다(직접 계산). 세금 4달러 중 1달러가 이자로 나간 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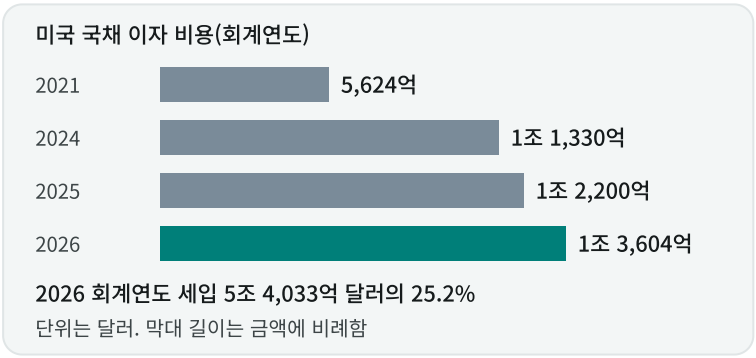


그림 5. 정부 기금이 보유한 국채에 준 이자를 포함한 금액. 출처는 미국 재무부 Fiscal Data.

이자는 앞으로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미국 국채의 평균 이자율은 2021년 말 1.432%였습니다. 2025년 말에는 3.362%, 2026년 10월 말에는 3.570%입니다. 낮은 금리로 발행한 옛 국채가 만기를 맞을 때마다 지금 금리의 새 국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방향은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의 국고채 발행 계획은 222조 8,000억 원입니다. 국고채 이자 예산은 35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 29조 2,000억 원보다 많습니다. 다만 기준에 따라 40조 원대로 추산한 보도도 있어 [확인 필요]입니다.

이처럼 이자가 늘면 적자가 커지고, 적자가 커지면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합니다. 빚은 금리가 잘 내려가지 않게 받치는 힘이 됩니다.

06

일본 금리가 오르면 왜 세계 금리가 함께 움직일까?

금리가 「함께」 오르는 데에는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대표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입니다.

일본 10년물 금리는 연초 2.111%에서 10월 7일 3.111%까지 올랐습니다. 30년물은 10월 6일 4.168%였습니다. 일본 투자자에게는 환율 위험을 지고 해외 채권을 사지 않아도 자기 나라 국채에서 받는 이자가 커진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 집계로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2월 말 1조 2,393억 달러에서 8월 말 1조 683억 달러로 1,710억 달러 줄었습니다(직접 계산). 같은 기간 중국은 6,942억 달러에서 5,907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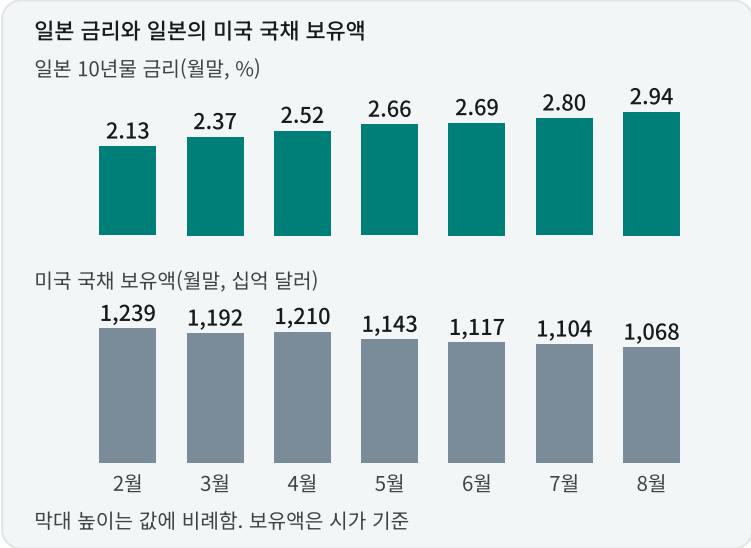


그림 6. 일본 금리가 오르는 동안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줄었음. 출처는 일본 재무성, 미국 재무부 TIC.

두 가지를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보유액은 시가 기준이어서 채권 가격이 내린 몫도 들어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팔았는지도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올해 미국은 빚을 2조 달러 넘게 늘렸는데, 가장 큰 손님의 보유액은 줄었습니다.

한 나라의 금리가 오르면 그 나라 돈이 해외 채권에서 빠져나올 이유가 커집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금리를 밀어 올립니다. 한국 국고채 금리가 미국 금리를 따라 움직이는 날이 많은 것도 같은 연결 고리입니다.

07

금리가 이만큼 올랐는데 주가는 왜 버텼을까?

금리가 오르면 주식의 가치는 낮아집니다. 미래 이익을 지금 가치로 바꿀 때 더 많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는 왜 더 크게 흔들릴까?에서 계산해 봤습니다.

실제로 값은 깎였습니다. S&P500의 12개월 예상 PER(주가를 예상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은 1월 초 22.2배에서 11월 중순 18.3배로 내려왔습니다. FactSet 집계입니다. 17.6% 낮아졌습니다(직접 계산).

그런데 주가지수는 올랐습니다. S&P500은 1월 8일 6,921.46에서 11월 12일 7,592.40으로 9.7% 올랐습니다(직접 계산). PER이 내렸는데 주가가 오르려면 이익이 그보다 더 늘어야 합니다. FactSet이 집계한 2026년 연간 이익 증가율 전망은 33.3%입니다. 코스피도 올해 첫 거래일 4,309.63에서 11월 13일 5,290.53으로 22.8% 올랐습니다(직접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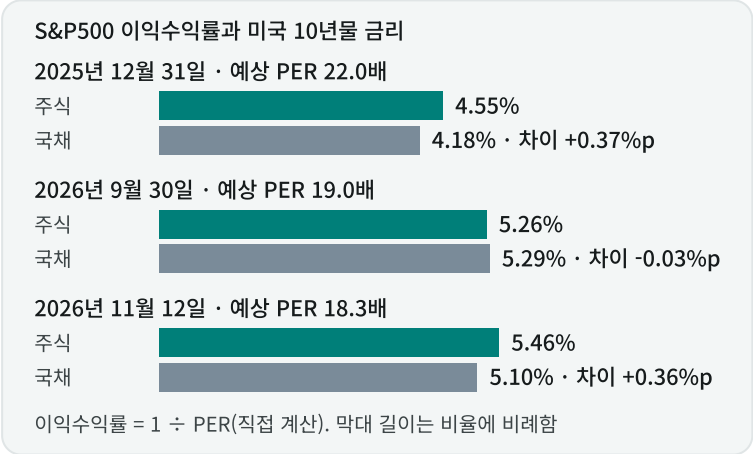


그림 7. 금리가 오른 만큼 PER이 내려 이익수익률과 국채 금리의 간격이 연초와 비슷해졌음. 출처는 FactSet, 미국 재무부.

PER을 뒤집으면 이익수익률이 됩니다. 주가 100원당 한 해 예상 이익이 몇 원인지입니다. 2025년 말 이익수익률은 4.55%로 10년물 금리 4.18%보다 0.37%p 높았습니다. 11월 12일에는 5.46%와 5.10%로 0.36%p 차이입니다. 금리가 오른 만큼 주식도 그만큼 값이 깎여 간격을 지킨 셈입니다.

9월 말에는 이 간격이 -0.03%p였습니다. 국채 이자가 주식의 이익수익률보다 높았습니다. 그 뒤 11월 5일에는 PER이 17.7배까지 내려갔습니다(FactSet).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올해 주가를 지킨 것은 이익이었습니다. 금리가 깎은 몫을 이익 증가가 메웠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금리가 높은 채로 이익 증가가 느려지면 받쳐 줄 것이 얇아집니다.

08

채권·대출·환율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났을까?

채권부터 보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미 발행된 채권의 가격은 내립니다. 새 채권이 이자를 더 주니 옛 채권은 값을 깎아야 팔리기 때문입니다. 만기가 길수록 더 크게 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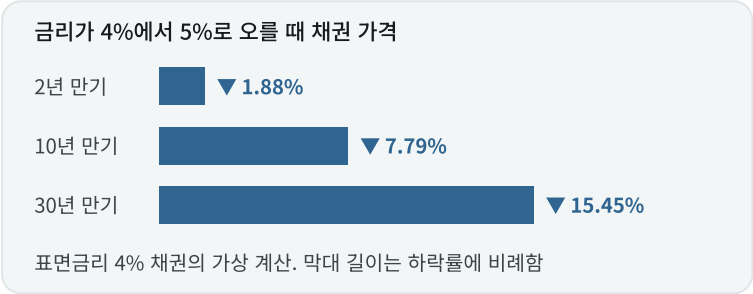


그림 8. 같은 1%p 상승에도 만기가 길수록 가격이 더 크게 내림(가상 예시, 직접 계산).

실제 숫자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표면금리 4.19%인 10년 만기 채권은 시장 금리가 5.15%가 되면 가격이 약 7.4% 내립니다(직접 계산).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ETF의 손실이 컸던 이유입니다. 반대로 지금 새로 사는 사람은 5%대 이자를 받습니다. 같은 금리 상승이 가진 사람에게는 손실이고, 살 사람에게는 더 높은 이자입니다.

다음은 대출입니다. 미국의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11월 12일 기준 7.11%로 1년 전 6.24%보다 0.87%p 높습니다(프레디맥 집계). 한국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5년 12월 4.23%에서 2026년 9월 4.88%로 올랐습니다. 3억 원을 빌렸다면 1년 이자가 1,269만 원에서 1,464만 원으로 195만 원 늘어나는 차이입니다(이자만 계산한 가상 예시).

한국 지표	연초	최근	변화
기준금리	2.50%	3.00%	▲ 0.50%p
국고채 3년	2.935%	3.759%	▲ 0.824%p
국고채 10년	3.386%	4.001%	▲ 0.615%p
주택담보대출(신규)	4.23%	4.88%	▲ 0.65%p
원/달러 환율	1,441.8원	1,336.7원	▼ 105.1원
코스피	4,309.63	5,290.53	▲ 22.8%

표의 금리·환율·코스피는 1월 2일과 11월 13일 값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 값입니다. 출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입니다.

환율은 교과서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10년물 금리 차는 연초 0.80%p에서 1.15%p로 벌어졌습니다(직접 계산). 보통은 달러가 강해지기 쉬운 조건입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은 1,441.8원에서 1,336.7원으로 내렸습니다. 금리 차 하나로는 환율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환율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이 오르면 미국 주식 수익률은 어떻게 달라질까?에서 다뤘습니다.



사진: 서울 중구 한국은행 화폐박물관과 뒤편의 한국은행 본관, 세종학당재단, 공공누리.

09

앞으로의 금리, 무엇을 보면 될까?

금리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신 어떤 조건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세 가지 힘이 그대로 세 가지 갈림길이 됩니다.

- **유가가 안정되는 길.** 유가가 더 내리고 근원물가의 월간 상승률이 낮아지면 인상 기대가 약해집니다. 이때는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부터 내립니다.
- **물가가 다시 오르는 길.** 유가가 다시 뛰거나 근원물가가 한 달에 0.3%씩 계속 오르면 추가 인상이 이어집니다. 이때는 10월 고점(미국 10년물 5.31%)을 다시 시험하게 됩니다.
- **빚이 받치는 길.** 물가가 잡혀도 적자와 국채 발행이 늘면 장기 금리는 덜 내립니다. 2년물은 내리는데 10년물과 30년물이 버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숫자는 엇갈립니다. 유가는 10월 2일 135.51달러에서 11월 11일 92.14달러로 32.0% 내렸습니다(직접 계산). 첫째 길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미국 10년물은 11월 6일 4.86%에서 13일 5.15%로 한 주 만에 0.29%p 올랐습니다. 10월 물가가 발표되면서 둘째 길의 신호가 나온 것입니다. 미국의 10월 재정적자는 4,041억 달러로 1년 전 10월의 2,843억 달러보다 컸습니다. 셋째 길의 신호입니다.

신호가 엇갈릴 때는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림 9. 정책금리 결정과 물가 발표 일정. 일정은 바뀔 수 있음.

읽는 법은 세 가지면 됩니다. 2년물이 내리면 시장이 인상이 끝나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2년물은 내리는데 10년물과 30년물이 버티면 빚과 수급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둘 다 오르면 물가 싸움이 길어진다는 신호입니다.

10

국채 금리 뉴스를 볼 때 던질 여섯 가지 질문

지금까지의 내용을 여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채 금리 급등」이라는 제목을 볼 때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금리가 얼마나, 어디까지 올랐나?"**
   → 미국 10년물은 4.19%에서 5.15%가 됐습니다. 고점은 10월 5일 5.31%로 2002년 5월 이후 최고였습니다. 다섯 나라가 함께 올랐습니다.

2. **"오른 것이 물가 기대인가, 실질금리인가?"**
   → 실질금리입니다. 1.94%에서 2.91%로 올랐고 기대 물가는 2.25%에서 2.24%로 그대로였습니다.

3. **"유가가 내리면 금리도 따라 내리는가?"**
   →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6월 말 유가는 충돌 전 수준이었지만 금리는 0.47%p 높았습니다.

4. **"정부의 이자 부담은 얼마나 되는가?"**
   → 미국은 세입의 25.2%인 1조 3,604억 달러를 이자로 썼습니다. 빚은 금리가 잘 내려가지 않게 받칩니다.

5. **"주가는 이익으로 버티는가, 기대로 버티는가?"**
   → 올해는 이익이었습니다. 예상 PER은 22.2배에서 18.3배로 내렸고 이익 전망이 그보다 더 늘었습니다.

6. **"2년물과 10년물이 같은 방향인가?"**
   → 2년물은 정책금리를, 10년물과 30년물은 빚과 수급까지 담습니다. 엇갈리면 원인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국채 금리 5%는 유가, 중앙은행, 나라 빚이라는 세 가지 힘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그 값은 주식의 PER, 대출 이자, 정부의 이자 비용으로 이미 치러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왜 함께 올랐는지를 알면 무엇이 바뀌어야 내려오는지도 보입니다. 오늘은 미국 2년물과 10년물 금리, 브렌트유 가격을 한 줄씩 적어 두고 12월 9일에 다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담당자 검토]

참고 자료

- 미국 재무부, Daily Treasury Par Yield Curve Rates와 Par Real Yield Curve Rates(2026.1.2~11.13, 과거 고점 비교는 2000~2025년 자료)
- 일본 재무성, 국채 금리 정보(1974년~2026.11.12). 독일 연방은행, 상장 연방증권 수익률 곡선에서 추정한 잔존 만기 10년 금리(일별). 영국 중앙은행, 10년 명목 액면가 수익률(IUDMNPY)과 Bank Rate(~2026.11.12)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시장금리(일별) 국고채 3년·10년·30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원/달러 환율(종가 15:30), 코스피
- 미국 연준 FOMC 성명(2026.9.16, 2026.10.28), 유럽중앙은행 주요 정책금리 표,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성명(2026.6.16, 2026.7.31)·의사 요지(2026.9.17~18)·회의 일정
- 미국 재무부 Fiscal Data: Monthly Treasury Statement(2026년 9월, 10월), Interest Expense on the Public Debt Outstanding, Debt to the Penny(2026.1.2, 2026.11.12), Average Interest Rates on U.S. Treasury Securities
- 미국 재무부 TIC, Major Foreign Holders of Treasury Securities(2026년 8월 말까지)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Europe Brent Spot Price FOB(일별). 미국 노동통계국(BLS), 소비자물가지수(CPI-U) 전체·근원·에너지 지수(2025.9~2026.10)
- FactSet, Earnings Insight(2026.1.9, 2026.11.6, 2026.11.13): 12개월 예상 PER, S&P500 종가, 2026년 이익 증가율 전망. 프레디맥, Primary Mortgage Market Survey(2026.11.12)
- 보도: CNBC(2026.11.13, 12월 금리 인상 확률), Al Jazeera·CNBC(미국·이란 충돌과 휴전 경과), 이투데이·이데일리(2027년 예산안 국고채 발행 계획과 이자 예산). 보도에만 있는 내용은 본문에 보도라고 밝혔고, 한국 국고채 이자 규모는 [확인 필요]
- 변화 폭, 배수, 비율, 기대 물가(국채 금리 − 물가연동국채 금리), 이익수익률(1 ÷ PER), 근원물가 연 환산은 위 자료로 직접 계산한 값. 표면금리 4% 채권의 가격 변화와 3억 원 대출 이자는 설명용 가상 예시

분류·태그 금리·환율 #국채 #금리 #밸류에이션 #실질금리 #유가 #재정적자

온라인 원문: https://www.stock-diary.kr/p/2026-11-15-bond-yields-2026.html

AI 활용 안내 이 리포트는 AI(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작성자가 검토했습니다. AI가 만든 문장과 숫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숫자는 「참고 자료」의 원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작권 안내 이 문서의 글과 그림은 블로그 운영자가 만든 것으로, 허락 없이 복제·배포·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용한 외부 자료와 사진의 저작권은 각 출처에 있으며, 출처는 본문 캡션과 「참고 자료」에 밝혔습니다. [담당자 검토]